

전통사찰 16곳 CD로 본다

역사와 전통의 향기가 서린 곳. 우리 고유 문화의 집합체인 부처님의 땅 전통사찰 16곳이 한 장의 CD로 담겨 불자들을 찾아간다. 사찰을 담은 CD '한국의 고건축'은 유광정보통신(사장 김연수)이 '저급향락문화로 치닫하고 있는

현실을 한국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흡수해 새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목적 아래 기획한 '한국의 멋' 시리즈의 하나. '한국의 멋' 시리즈는 총 4권이 기획됐는데 '한국의 고건축'과 '한국의 무속(굿)' 2권이 우선 출시됐다.



◇ '한국의 고건축'에 담긴 금신사 미륵전, 카메라 그림을 누르면 미륵전의 원경과 근경이 화면의 비디오를 보듯 생생하게 전해진다.

유광정보통신 '한국의 고건축' 제작 "마치 답사하듯 화면 생생"

'한국의 고건축'에는 법주사 부석사 은혜사 화양사 선운사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 한국의 대표적 전통사찰 16곳이 담겨있다.

각 사찰마다 동영상 설명에서부터 가람배치도·보유 유물유적 현황·일화·여행정보 등을 소개해줘 사찰여행 길잡이 역할도 해낸다. 또 사찰 공평 서원 등 한국 건축물의 전반적인 소개를 비롯해 담담 맞배지붕 배흘림기둥 등 건축 용어에 대한 건축구조 그림과 설명을 곁들여 전문적인 지식에의 접근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메뉴 사이 사이 흐르는 금강경 독경소리가 산

사의 고아함을 그대로 전한다. 전통문화 맛보기의 견인차 역할을 할 '한국의 멋' 시리즈는 지두환 교수(국민대 국사학과)가 감수를 맡았다.

제작을 맡은 멀티넷(과장 박종석)은 "고건축의 소재로 사찰을 선택한 것은 건축학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는 오래되고 보존이 뛰어난 사찰이 단연 으뜸이기 때문"이라며 "기존에 나와 있는 사찰CD들은 카탈로그 형식에 그쳤지만 '한국의 고건축'은 사찰 건축에 대한 국내 최초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CD"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황룡사 복원 가능한 일"

"컴퓨터활용 가상 원형 만든다"

문화재관리국 소실문화재 '복원시스템' 추진

컴퓨터를 이용한 문화재 보수 및 복원작업이 추진돼 훼손된 성보문화재에 대한 복원사업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은 19일 내년 8월말까지 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재보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작업으로 문화재원형복원 지원시스템을 개발, 훼손이 심하거나 소실된 문화재의 원형을 컴퓨터로 복원한다. 또 그래픽을 활용하는 문화재 복원 수준을 뛰어넘어 재질 및 두께, 넓이, 축적 등 현장복원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까지 지원하게 된다.

시범적으로 경복궁을 대상으로 소실된 흥례문, 유화문 등 옛 건축물의 가상원형을 복원하는 한편 경주 남산의 폐탑 1기의 국보·보물 중 훼손된 석탑 2기의 복원시스템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영역을 확대, 소실된 모

든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복원작업에 들어간다.

현재 지정문화재 7천1백30건 중 보수정비대상은 2천여건에 이르는 연간 보수정비는 5백건에 불과한 실정. 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보수가 대개 수작업을 통해 처리되고 있어 원형복원을 의심하는 경우도 많다. 컴퓨터그래픽을 활용, 가상 공간 속에서 복원과 검토 수정을 거듭하며 최선의 대안을 얻어 실제 복원에 들어간다면 문화재 복원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비용 및 시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의 원형복원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논란이 되고있는 황룡사지와 미륵사지 등 폐사지의 복원은 물론 일부만이 남아있는 석탑과 훼손된 탕화 등 문화재 원형복원작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제의 대표적 사찰터인 부여 정림사지에 기념관이 건립된다. 부여군은 1백여명의 예산을 들여 사찰모형전시관, 유물전시관, 교육홍보관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춘 4백여평 규모의 기념관을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림사지 기념관 건립

사찰모형실·유물실 등 갖춰

특히 사찰모형전시관은 정림사지·군수리사지·미륵사지 등 백제의 옛 사찰은 물론 일본 법흥사·사천왕사 등의 모형물, 유물전시관은 불상·와당 등 백제유물을 중심으로 전시, 소개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 국비, 지방비 등 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 및 기초공사를 실시한다.

사진박물관 세운다

'사진영상의 해' 사업 확정

'98 사진영상의 해를 앞두고 조직위원회 사무처 현판식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서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조직위(위원장 임옥식)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진박물관 건립 △서울과 평양에서 여는 남북교류 사진전 △21세기 사진영상 학술대회 △'98 사진영상 축전 △인터넷 사이버 갤러리 운영 △한국사진도움초기부터 현대까지 발전사를 담은 한국사진역사전 △스튜디오 임체사진 사이버 스페이스 등 정치화상과 동영상의 영역을 넘나드는 첨단경향을 소개하는 사진의 시각적 확장전 △광복 50년후 한국현대기록사

진전 △한국민사사진축제 등 9가지 중점사업과 △환경사진페스티벌 △한국사진 다류 제작 △독도, 비무장지대 촬영회 등 후원사업 8가지를 밝혔다.

조직위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사진박물관 건립. 120년에 이르는 한국사진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박물관은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1월 중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료수집과 건물확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자료수집은 각 사진단체, 언론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진자료를 기증받고 외국의 문서관소, 박물관, 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 '사진영상의 해' 심포지움과 로고.

사진자료를 수집하는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전국민사사진기 운동을 벌인다.

또 남북의 사진가들이 촬영한 조국산하와 동포들의 생활상을 담은 작품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교환전시하는 '남북교류사진전'은 통일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행사로 관심을 끌고 있다.

'98 사진영상의 해의 공식포어는 '순간의 기록 영원한 역사' '사진사랑 나라사랑 소중한 우리 기록' '미래의 세계 사진의 세계'이다. (속)

경주 불교유적 462건

경주부 유적지도 발간... 곧 '해설집' 펴내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장우방)과 경주시가 최초로 경주지역 유적을 총망라한 <경주유적지도> 1만분의 1 지도를 발간했다. 연인원 1천7백여명을 동원, 지난 2년간의 조사 끝에 선사~조선시대에 걸친 고고학, 미술사, 건축사 관련유적 중 지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1천4백 33개소의 유적을 담아냈다. 지도에 따르면 경주에는 총 462건의 불교유적이 산재해 있다.

지도의 구성은 지역에 따라 경주·남산·동부·서부·북부 등 5개 권역으로, 유적의 성격에 따라 선사유적·불교유적·고분·건축·비등 9가지로 나눠 기록했다. 색인은 지역별, 분류별로 유적명·지도색인·소재지·시대·참고 등을 수록, 유적사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 추가 발견되는 유적을 새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우방관장은 "이 지도의 발간은 경주의 유물·유적 연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몰살을 당하고 있는 경주유적의 보존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각 유적의 현재상태를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는 <경주유적지도 해설집>도 곧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지역 유적을 총망라한 1만분의 1 '경주유적지도' (부분).

北 문화유산 조사 본격화

16일 조사단 방북...분단이후 첫 문화교류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녹일 '북한 문화유산 조사단'이 16일 방북, 30일까지 북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을 조사한다.

북한 조선아세아태평양문화위원회 초청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남북한 당국의 승인아래 이뤄진 첫 문화교류사업. 평양을 비롯 개성 중심의 황해도, 금강산지구, 백두산, 개마고원 등을 두루 살펴본 문화재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북한의 산하를 글과 그림으로 풀어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권영민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을 비롯 풍수지리의 대가인 최창조 전서울대교수, 한국화가 황창백씨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양측은 11월과 98년 4월이후 약 보름간의 일정으로 북한 문화유산 답사 및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의정서를 교환하는 한편 협력사업을 위한 계약서에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통일문화연구소는 통일원 교류협력국에 '사회문화협력 사업자 및 사업 승인'을 신청, 10일 승인됨에 따라 방북이 이뤄진 것이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 명으로 이끄는 신명의 길잡이.

현대 불교

- 부산지사 051-634-5114
- 광주지사 062-375-9986
- 대구지사 053-768-8008
- 목포지국 0631-281-2534
- 속초지사 0392-636-3923
- 북인천지국 032-541-8770
- 청주지사 0415-63-3873
- 강릉지사 0391-43-5599
- 인천지사 032-461-3461
- 춘천지사 0361-241-0633
- 대전지사 042-625-1080
- 안산지사 0345-411-4580
- 진주지사 0591-747-0106
- 마산·청원지사 0551-84-0735
- 공주지국 0416-55-0020
- 고성지국 0556-72-0078
- 예산지국 0458-33-5097
- 포항지국 0562-252-7749
- 고양지국 0344-912-2323
- 영주지국 0572-34-3429

어린이 불교성전

강석주 스님 증명 법 정 스님 감수

- 어린이 범화용
- 재미있는 그림
- 어머니와 함께 보는 경전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고급양장 · 369쪽 · 값: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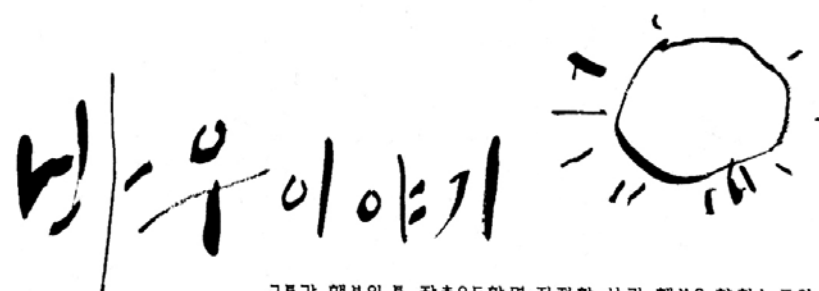
총판·윤우사 · 720-9372~3, 735-9170

법보사는 법원사(02-733-5322)로 문의하세요.

도서출판 단이슬

Tel. 267-8101 Fax. 263-3002

이.세.상.에.감.취.진.진.정.한.우.리.의.행.복.찾.기



고통과 행복의 틈, 작음움들하며 진정한 삶과 행복을 향한 끊임 없는 구도의 여정을 불교적 관점에서 시의 영태로 표현해낸 아름다운 서사시이다.

대단히 고급스런 문체에다 내용이 아주 깔끔해요. 음악으로 치자면 명상음악같은 음율을 지닌 멋과 맛이 있는 책이에요. 근태에 읽은 도서 중 가장 정성을 다하여 읽었습니다.

'백우이야기'는 삶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전국 유명서점에서 구입하세요."

도서출판 한길

전화 0346-574-5555 팩스 0346-574-0808

지은이·박 경

정가·7,500원